

4/20/24

설교 제목: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3 장 1-16 절

- (빌 3: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 (빌 3: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 (빌 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절관주** 갈 6:14
- (빌 3: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절관주** 고후 11:18
- (빌 3: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 (빌 3: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절관주** 사 53:11, 요 14:7
-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 (빌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 (빌 3: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 (빌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절관주** 살후 2:13
- (빌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절관주** 눅 9:62, 히 6:1
- (빌 3:14)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 3: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빌립보 교회는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방 성도들에게 율법대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런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주의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빌 3: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는 4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뻐하라'는 말과 '기쁨'이란 말이 반복하여 언급됩니다.

그런 연유로 본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 1: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 1:4) 간구할 때마다 너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 1: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 2: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는 하느니라

(빌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토로한 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기뻐할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 권력 부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자유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위 권력 명예 부 쾌락 등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샀다고 해서 영원히 기뻐니까?

우리가 승진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기뻐니까?

얼마 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등을 원하게 되고 따라서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는 인간의 영원한 숙제였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칭의를 얻게 되어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은 것을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같은 말을 쓰고 있다고 하며 그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같은 말'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복음을 왜곡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경고하는 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주의를 따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등 복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 3: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자들의 실상을 먹을 것을 위해 거리나 들판을 배회하면서 온갖 불결하고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 떠돌이 개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엑스타시에 빠져 자기 몸을 괴롭히고 신체를 자학하는 이방 종교 신자들과 같이 교회 내 이방 성도들에게 율법대로 할례를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의식 등 형식을 통해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율법만을 중요시하는 이단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빌 3: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할례파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할레파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같은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할레파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할레는 마음에 할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많은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 3: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 3: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 3: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이스라엘 족속 그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로 율법을 따라 태어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속한 지파로 왕족입니다.

하만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한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속한 지파입니다.

'히브리인'은 '건너편에 있는 지방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하였기에 그의 후손들에게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란 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흠없는 유대인이자 율법적으로 유대에서 가장 유력한 당파이자 정통파로 인정받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배경을 가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복음이 자신이 믿는 율법과 전통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잃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과거에 구원을 얻을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외적인 조건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 3: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의가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라는 뜻으로 주님과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는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합니다.

(빌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 3: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성육신, 독특한 인격, 속죄 사역,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영광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원히 정복한 부활은 장차 성도들이 체험할 부활입니다.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달려 갑니다.

(빌 3: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 3:14)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라도 그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굳건하게 이 진리를 꼭 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은 것을 기뻐하며 말입니다.

그리할 때 결국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